

- 익산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

회 의 록

○ 일 시 : 2018. 3. 19 (월) 16:00 ~ 17:00

○ 장 소 : 회의실 (2층)

○ 참석인원 : 11명 / (김철모 위원장님 외 10명)

- 김철모 위원장님

- 양승일, 한동연, 최양옥, 김현정, 소경섭, 윤여복, 서선희, 심은숙, 도성희, 최경희 위원님

○ 주요안건

- 2017년 익산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 결과보고
- 2018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추진계획 및 운영기관 사업설명
- 지역연대 운영 협력체계 활성화 및 기관 단체간 협조·건의사항 등

○ 회의내용

- 개회 및 위원소개
- 위원장 인사말씀
- '17년 익산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결과 보고 및 '18년 추진계획 설명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 '18년 익산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기관 사업계획 설명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복남 팀장)
- 지역연대 활성화 방안 토의 및 협조 · 건의사항

사회자(여성친화정책계장) : 2018년도 익산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추진하게 될 전북서부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이복남팀장으로부터 운영계획 설명이 있겠습니다.

### 【아동·여성 권리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설명】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이복남 팀장

이복남팀장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희위원 : 실적이 작년에는 5가정인데 올해는 3가정으로 왜 줄어들었는지,  
혹시 보조금이 적어서 그러는 건지요?

이복남팀장 : 저희가 보조금 외에도 사업을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5가정을 선정을 해서 목표를 했습니다. 각 가정의 가정폭력 특성 등에 따라 중간 탈락률이 높은 상황이었고, 대부분 자발성 떨어지고 가정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는 100%로 참여 할 수 있는 3가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5가정까지 추가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경희위원 : 가정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복남팀장 : 학대피해아동이나 가정폭력 동반한 피해아동 가정입니다. 우리 기관은 사례관리를 하는데 1차적으로 학대피해 신고와 가정폭력 신고 된 가정으로 학대피해와 가정폭력이 동반 된 가정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한동연위원 : 학대 행위자들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이 어렵지 않나요? 잘 받아 주나요?

이복남팀장 : 조금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본인들이 느끼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법원을 통해서 수탁프로그램으로 강제성을 부여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례 선정을 할 때에는 자발성 의지가 높은가정 위주로 선정 하고 있습니다.

윤여복위원 : 저희가 행위자들과 상담을 하면 처음에는 행위자들이 거부적이지만 오리엔테이션과 기본적 라포가 형성 되면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옵니다. 보호자분들이나 상담 분들도 처음만 거부스럽지 그 이후에는 속 털어 놓을 곳이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며 자기반성을 많이 하고 가십니다.

이복남팀장 :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소경섭위원 : 예산이 700만원인데 부족하지 않으신지?

이복남팀장 : 예산이라는 것이 많으면 좋지만 제한적 예산 한에서 제대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여성보육과 이명희과장의 보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할 시간을 갖고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활동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시다.

**도성희위원**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업이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자부담 부분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가족사례를 해보면 클라이언트들은 주말에 시간이 되는 데 저희는 근무는 월~금에 일을 합니다. 휴일인 주말에 나와서 일하게 되는 직원들을 위해 주말운영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명희과장** : 100%(국·도·시비) 실행이 가능하지만 사업 신청 단체가 많을 경우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부담 능력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선정 조건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또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께서는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 외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운숙위원** : 제가 가정폭력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젊은 부부 가정이 많은데 결혼하기 전에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건강한 가정생활, 학생 대상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면 가정폭력이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희과장** : 예비부부, 부모관련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운숙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양육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예비부부, 부모, 양육 부분의 교육 등을 사전에 미리 교육을 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 택배함이 2곳 신동주민자치센터와 영등동도서관에 있는데 이용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은지, 모현동이나 마동쪽에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희과장** : 네. 2016년 10월부터 택배기사를 사칭한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3,579건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한곳 설치에 임대료, 운영비 등 55만원 정도로 현재 2곳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성단독세대 등 20~30대 실태조사를 거쳐 모현동과 마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 20대, 30대 젊은 층의 대상으로 예비부부 교육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교육보다는 이주여성 배우자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배우자분들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 그리고 배우자들의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희위원** : 작년에 쉼터에 들어오는 대부분 젊은 가정 학생들이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도성희위원 : 가정폭력, 성폭력도 중요하지만 익산시 공공성 교육프로그램 진행시 성인적 관점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운숙위원 : 익산에 원광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을 듯해요

최양옥위원 : 교육청과장님,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부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있나요?

김현정위원 : 아직은 성교육은 의무적으로 하지만 부부나 부모교육까지 다 시키기에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과목도 많은데 한번에 가르치면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 학생 때부터 성교육을 시키면서 부부나 부모교육을 병행시켜서 교육시키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요즘 어린나이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미혼모도 많아지다 보니 교육청에서 고려해서 같이 교육을 미리 시켜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심운숙위원 : 저희가 작년에 교육청에 공문을 넣어서 성교육예방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예방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현실적인 문제인거 같습니다. 과거랑 달리 요즘 중고등학생들 한데도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연령층이 다양화 되어있고 교육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 양승일위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승일위원 : 이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학교, 가정, 사회 총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도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로펌에서 여성 변호사와 연결해서 무료로 변호를 해드리고 있으니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위원들 : 네, 없습니다.

위원장 : 기타 의견이 없으시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익산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